

# 대형마트 막바지 봄 할인전...“식품·생필품 반값”

### 이마트 광주점 '주말 3일 특가'...한우 등심·삼겹살 최대 50% 할인

### 롯데마트 '롯데레드페스티벌'...인기 신선 식품 올 상반기 중 최저가

대형마트가 막바지 봄 나들이족을 겨냥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선다.

유통업계는 올 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이른 휴가나 나들이에 나서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최대 반값에 선보이는 혜택을 선보인다.

이마트 광주점은 오는 31일부터 6월2일까지 인기 먹거리와 생필품들을 특가에 판매하는 '주말 3일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들이에 나서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첫번째 주에 기획됐다.

광주점은 행사기간 캠핑과 나들이 필수 식재료인 육류를 최대 반값에 선보인다.

한우 등심(냉장)을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고, 수입 돈삼겹살·목심(100g)은 기존 가격보다 47% 저렴한 1280원에 할인 판매한다. 이른 무더위를 이겨낼 보양식으로, 양념 닭 주물럭(800g)을 행사 기간 중 신세계포인트

트 적립 시 5000원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바비큐에 빠져서는 안되는 채소도 특가에 선보인다. 최근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파프리카는 개당 990원, 휴대파는 한 봉에 198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간편한 조리과정으로 나들이 먹거리로 수요가 높은 델리 등 간편식도 많게는 절반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광주점은 행사 기간 치즈 전 품목과 냉동 핫도그 전 품목(CJ제외), 삼진어묵 전 품목, CJ·사조 삼장 전 품목 등 다양한 나들이 먹거리를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가에 판매한다.

또 델리 코너에서는 키친델리 닭강정 전품목과 미니버거 파티팩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각각

30%, 20% 할인 판매하며, 안심텐더, 스키블랙 전 품목, 점보숯불양념 닭다리 등은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놨다.

롯데마트도 오는 30일부터 6월5일까지 육류 등 인기품목들을 최대 반값에 선보이는 '롯데레드페스티벌' 1단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롯데마트는 역대급 저렴한 가격으로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나들이 먹거리로 수요가 높은 인기 신선 식품들을 올해 상반기 중 최저가에 선보인다.

'호주정정우 척아이롤(100g)'은 오는 6월 2일까지 행사 카드로 결제 시 50% 할인된 990원에 판

매한다. 지난해 최저 행사기보다도 25% 이상 낮은 가격으로, 2020년대 들어 가장 파격적인 먹거리 행사로 꼽힌다.

파스타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는 '할 랍스터(1마리)'도 행사카드 결제 시 3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400g 내외의 '중' 크기는 1만 2935원, 700g 내외의 '대' 크기는 2만 4635원에 만날 수 있다.

그 외에도 나들이 간편 식재료로 인기 있는 'CJ 스펀 상갈 3종(80g,3입)', 'CJ 바비큐 포키김치(900g)', '사조 참치 3종' 등은 '1+1', '2+1',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1인 가구 조각수박 드세요

### CU 때 이른 더위에 수박 출시

편의점 CU는 이른 더위에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수박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통 수박은 1~2인 가구를 겨냥해 5kg 내외 크기를 판매한다.

수박 원물 시세가 낮아진 것을 반영해 가격을 지난해보다 5천원 낮췄다. 판매가는 정기적으로 원가 변동을 반영할 예정이다.

수박의 당도를 11브릭스(Brix)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월별로 수박 산지를 선정해 사전 납품 계약을 맺었다. 다음 달까지는 논산, 7월부터는 음성 수박이 판매된다. 간편 과일 트렌드에 맞춰 껍질을 벗기고 깎아먹기 쉬운 수박을 담은 '싱싱생생 조각 수박' (250g)도 출시했다.

다음 달 초에는 애플수박과 6kg 이상 수박을 출시하며 자두와 복숭아도 함께 선보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롯데백화점 '유기농·저탄소 한우 박람회'

### 다음달 6일까지...최대 40% 할인

롯데백화점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점포 식품관에서 '친환경 한우 박람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유기농데이'(6월 2일)와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유기농 한우와 저탄소 한우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행사다. 엄선한 한우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유기농 한우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 차항면에서 자랐다. 비유전자변형(NON-GMO)작물과 유기 농산물로 만든 사료만으로 사육해 육질이 담백하며 식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라고 롯데백화점은 설명

했다.

저탄소 한우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저탄소' 공식 인증을 부여받은 농장의 한우들로 탄소 배출량을 세계 평균 대비 최대 절반 이상 줄였다. 품질 개량을 통해 사육 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30% 줄여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도축 시점을 앞당겨 육질이 부드럽고 연하다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

도상우 롯데백화점 미트(Meat) 팀장은 "롯데백화점이 엄선한 친환경 한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 헬스 파트너 데이 지난 28일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된 '삼성 헬스 파트너 데이(Samsung Health Partner Day)'를 찾은 참석자가 올 하반기 출시되는 '갤럭시 링(Galaxy Ring)'을 살펴보고 있다. 하반기 출시될 웨어러블 제품인 갤럭시 링은 수면 중에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반지 안쪽 면이 손가락을 감싸 사용자의 세밀한 건강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 제공>



### 광주신세계, 줄 서서 먹는 도넛 '노티드' 오픈

### 서울 청담동 제과점 디저트 브랜드...광주·전남지역 첫 매장

광주신세계는 30일부터 '줄 서서 먹는 도넛'으로 유명한 '노티드' <사진>를 본관 지하 1층에 정식 오픈한다고 29일 밝혔다.

노티드는 2017년 서울시 청담동의 작은 제과점으로 시작해 입소문을 통해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광주신세계 노티드는 광주·전남 지역 첫 매장이다.

노티드는 인플루언서들이 즐겨찾는 인기장소로 자리잡아 전국적인 오픈런 신드롬을 만들어 내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신세계 노티드 매장은 도넛 21종과 소금빵 5종, 케이크 3종 등 총 29종의 베이커리와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한다. 노티드 도넛은 풍부한 크립으로 맛에 대한 평가가 높고, 마스코트인 '슈가베어'와 '스마일리' 등 캐릭터를 활용한 포장 패키지를 사

용한다. 노티드의 시그니처 메뉴인 '우유 생크림 도넛'을 필두로 '베리머치도넛', '얼그레이도넛' 등 10여 종 이상 메뉴로 '도넛의 성지'로 불리며, 웨이팅 맛집으로 거듭났다.

대표제품으로는 우유 생크림 도넛(3900원), 초코 푸딩 도넛(3900원), 모카번 연유 크림 소금빵(5500원), 황치즈 크림 소금빵(2500원), 옐로우 스마일 케이크(2만 2000원), 밀크 데이치 케이크(2만 2000원) 등이 있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생활팀장은 "광주신세계는 평소 지역에서 만나볼 수 없는 다양하고 맛있는 경험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광주신세계 노티드 매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한 맛을 제공하는 도넛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